

유엔사 '尹 DMZ 방문' 정전협정 위반여부 이례적 조사

입력 : 2021-12-22 22:48 | 수정 : 2021-12-23 06:05



▲ 3사단 전방관측소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1.12.20 국회사진기자단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강원 철원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가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의 전방부대 방문과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백골 전방관측소(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반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 준수 저해 행위와 민간인을 과도한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보도자료에 윤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강원 철원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유엔군사령관은 남측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쌍방 병력의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활동에만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불행히도 지난 20일 최전방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조사 완료 뒤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